

잔잔한 감동을 전하며 200만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라디오 스타'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올 한해 영화계를 반짝반짝 빛낸 '스타'들은 많다. 하지만 이들 스타들 역시 '저 혼자' 반짝이지 않았다. 아직은 영화 속 이름에 더 익숙해 보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진을 접해야만 '아, 그 사람' 하지만 연극 무대에서 같고 닮은 그들의 연기 내공 만큼은 주연 배우들 못지 않다. 제 2의 김수로와 이문석을 꿈꾸는 2006년을 빛낸 조연배우들을 만나본다.

2006 충무로 조연 열전

그대! 주연 보다 더 빛났다

'올해의 발견' 아귀 김윤석

영화 '타짜'를 본 사람들은 주인공 고니와 손가락을 절고 마지막 승부를 겨루는 '아귀' 김윤석을 잊지 못할 것이다. 결속한 전라도 사투리에 시니컬한 표정. 뒷장면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강한 연기는 오락 영화 '타짜'에 방점을 찍었다.

몇개월 먼저 개봉한 '천하장사 마돈나'에서 트랜스젠더가 되길 원하는 아들 동구를 이해 못하는 폭력적인 아버지로 나올 때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평론가들은 그의 연기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고 영화관을 나서는 관객들 역시 "대체 아귀라는 배우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하며 열광했다.

그의 인기는 TV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회라와 출연중인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에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난 '유미 아빠' 역을 맡고 있는 그의 열연 덕에 드라마는 '시청률 톱 10'을 넘나들고 있다.

'장진의 보석' 류승룡

정재영·신하균 등을 키워낸 장진 사단에 또 한명의 굵직한 배우가 등장했다. 장진 감독의 '거룩한 계보'에 출연한 류승룡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박수칠 때 떠나라'에서 주인공 차승원의 동료감사로 나왔던 류승룡은 '거룩한 계보'에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정재영의 친구 '순탄'으로 출연, 또다른 주인공 정준호 보다 훨씬 강한 이미지를 남겼다.

그가 남긴 명대사. '넌 밀어붙여, 난 퍼부어 땀 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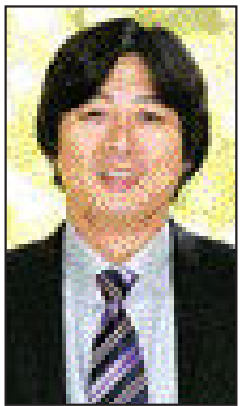
'충무로의 섀넬' 진구

드라마 '올인'에서 이병헌의 아역을 맡았던 배우 진구는 '제2의 이병헌'으로 불리며 주목 받았다. 이후 '제2의 누구'라는 말이 어색할만큼 자신만의 연기를 펼치며 영화계에서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을 시작으로 유하 감독의 '비열한 거리', '아이스케키'에서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비열한 거리'에서 주인공 병두의 오른팔인 '종수'역을 맡아 소름끼치는 눈빛연기로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최근 개봉한 '사랑따윈 필요없어'에서는 말괄

김윤석



류승룡



김상호



진구



은 술집 남자 접대부 역할을 맡아 또 한번의 변신을 시도했다.

'소시민의 얼굴' 김상호

'타짜'의 주인공 고니가 만나는 '고수'들은 화투판의 고수들일 뿐 아니라 연기의 고수이기도 하다.

'짜귀' 주진모, '과용철' 김응수 등은 극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조연이다.

그중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에다 끝내 목숨을 잃고 마는 '박무석'역의 김상호는 눈길을 가는 배우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룬 '그 때 그 사람들'에서 '거사'의 내용도 모른 채 열혈결투 사건에 개입한 인물을 맡았던 김상호가 '타짜'에서 '불나비'를 부르는 장면은 웃기면서도 연민을 자아내는 명장면 중 하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인권영화제 8~10일 5·18기념 문화회관



개막작 '안녕, 사요나라'

평화·인권 11년의 외침

제11회 광주인권영화제가 '저항의 숨결, 가능한 변화'라는 주제로 8~10일 5·18기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광주인권영화제는 순수하게 1천만원 안팎의 시민후원금만으로 치러지는 영화제다. 규모는 다른 영화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11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영화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응원을 담은 인권 영화들이 상영된다. ▲저항의 숨결 ▲세계화에 반(反)하다 ▲다름으로 닮은 ▲광주의 시선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미군기지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추리 전쟁', 원폭문제를 기록한 '일곱 60년 그리고...' 등 24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개막작으로는 아스쿠니 신사참배를 통해 한일 간의 역사적 질곡을 들여보는 '안녕, 사요나라'가, 폐막작으로는 훗카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에 다니는 재일조선인 3, 4세의 일상을 통해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살펴보는 '우리학교'가 선정됐다.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는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평화를 택하라', 도시의 빈민가와 소외된 이들을 담은 '소외와 시선'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2-529-7576, www.gjhrff.com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하하, 목소리 연기자로 데뷔

만능 엔터테인먼트 하하(사진)가 목소리 연기자로 데뷔한다.

하하는 가족영화 '여름이 준 선물'(감독 이영재, 제작 시네마제니스)에서 '넵치'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중저음의 목소리를 선보였다.

'여름이 준 선물'은 천진한 세 아이와 외로운 노인의 한관 승부를 다루고 있는 영화로 하하는 희집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일을 배우는 '동화'가 상상 속에서 넵치와 대결을 벌이는 장면에서 목소리를 빌려준 것.

불량기 다분한 하하의 목소리가 아이의 상상 속에서 코믹한 웃음을 더해준다. '여름이 준 선물'은 2007년 봄에 개봉 예정.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그해여름 한류스타 이병헌과 청순한 매력의 수애가 만난 멜로 영화다. 두 배우의 호연이 돋보인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안,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잔잔한 연기를 선보였던 한석규가 오랜만에 멜로로 돌아왔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안,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핀의 미로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신비로운 요정 핀이 일러주는 대로 모험을 떠나는 소녀 오필리아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그린 판타지 영화다. 15세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안, 목포 프리머스
세르주 노박의 겨울여행 팜코틸의 매력을 그려낸 프랑스 영화로 이들의 여자와 불륜에 빠지는 작가 다니엘 볼탄스키의 이야기를 다뤘다.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히미
디파티드 홍콩 노와르 '무간도'를 할리우드 스타일로 리메이크 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메 데이먼 등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인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하남), CGV(광주·첨단), 프리머스 제일, 히미, 목포 롯데,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플러쉬 하수구에 떨어진 햄스터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케이트 윈슬렛, 휴 잭맨 등 인기 배우들이 더빙을 담당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 더빙은 투사부 일체 출연진이 많았다.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 밀리오레, 콜롬버스(하남), CGV(광주·첨단), 히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목포 프리머스
해바라기 가진 것은 주먹밖에 없는 남자에게 따뜻하게 다가온 모녀. 그리고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한 안타까운 결투가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광주·첨단), 히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안,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스텝업 미래가 보이지 않는 스트리트댄서와 엘리트 예술학교에 다니는 발레리나 지망생의 사랑과 성장을 그렸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롯데, 목포 프리머스
누가 그녀와 잤을까 고등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섹시 코미디로 학교에 떠도는 은밀한 소문의 주인공을 추적한다. 15세 관람가.	메가박스,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히미, 목포 롯데
후회하지 않아 남성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그려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다. 18세 관람가	광주극장
세번째 시선 영화 '미리톤'의 정은철 감독 등 6명의 감독이 빛어낸 우리 시대의 인권 영화다. 12세 관람가.	광주극장

VIP전문 Propose 전국 23개지사 (해운 15개지사) 전문점모집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전문직종사자, 기업근로자, 농·어민, 공무원 등

- 국적결혼: 초혼, 재혼, 실버혼, 커플결혼, 시·처가상향
- 국제결혼: 온·오프라인 교외인,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주) 웨딩스쿨 관두지사 062-350-6147 010-3545-1491

2006년 빛고을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ANTIQUE FURNITURE GALLERY

- 3인용 소파: 54,000원
- 1인용 소파: 29,000원
- 2인용 소파: 47,500원
- 3인용 소파: 59,000원
- 3인용 소파: 69,000원

1층 연희가구전문점 062-955-8820